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월(제6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서로 돕고 돕는 역사’를 재확인한 소중한 만남  
🔥 타이베이 처장(총영사) 방문 오이타현



왼쪽부터 정(鄭) 처장 부인, 천(陳) 처장,  
히로세(広瀬) 오이타현 지사, 리(李) 섭외과장

지난 12월 27일, 주오사카 타이베이 경제문화판사처 후쿠오카 분처(台北駐大阪經濟文化弁事処福岡分処)의 천밍쥔(陳銘俊) 처장과 정징민(鄭靜敏) 처장 부인이 오이타현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새로이 부임한 천 처장이 부임 인사차 히로세 지사를 예방한 것으로 히로세 지사도 부임 축하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어 천 처장은 오이타의 말린 표고버섯이 대만에서 유명한 것과 1930년대만 우산토(烏山頭) 댐 건설 시 수로를 만든 오이타현 출신 기술자 나카지마 리키오(中島力男) 씨를 언급하며 오이타현과 대만의 깊은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진중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만은 지난 2003년에 유행했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을 교훈 삼아 이번 코로나19 사태 발생 시 즉각 국제선 운항을 중지하는 등 빠른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시 대만의 구호금 지원(당시 260억 엔(한화 약 2,730억 원)), 코로나19 발생 시 일본의 백신 제공 등을 언급하며 일본과 대만의 ‘서로 돕고 돕는 역사’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먹거리 & 액티비티가 가득한 나카쓰의 겨울!  
🔥 나카쓰 굴 ‘히가타 미인’ 나카쓰시



‘히가타 비진(ひがた美人)’은 호주의 양식 기술을 도입하여 만들어진 일본 국내 최초 갯벌 양식 굴입니다. 특수 양식용 통발에 굴을 넣어 키우는데 조류에 휩쓸리며 껍질끼리 부딪히고 다듬어진 덕에 겉보기에도 아름다운 미인(비진, 美人) 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루 2번 간조(바다에서 조수가 빠져나가는 것) 때에도 잘 버티어 살이 탱탱하고 단 맛이 응축된 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카쓰에서 즐기는 겨울 액티비티!



자연환경이 풍부한 야마쿠니정 모리자네(山国町守実)에 위치한 복합시설 ‘코어 야마쿠니(コアやまぐに)’에 아이스링크장이 개장했습니다. 신나게 즐긴 후에는 근처에 있는 온천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이스링크장은 3월 7일까지)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월(제6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백 투더 1950년 : 일본 쇼와 시대를 체험하다

## 쇼와노 마치(쇼와의 마을) 분고타카다시

지난 2001년에 개봉한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9기 : 어른제국의 역습’을 본 적이 있는가? 꽤 오래전에 개봉한 작품이지만 ‘히로시(신형만)의 회상’이라는 OST가 유명세를 타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에 나오는 ‘20세기 저녁놀 마을’은 1970년대의 쇼와(昭和) 시대를 재현해 놓은 곳으로 70년대 출생 등장인물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유년 시절, 즉 쇼와 시대를 그리워하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20세기 저녁놀 마을’이야말로 당시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할 곳은 영화 속의 이 시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곳, 바로 분고타카다(豊後高田)시의 ‘쇼와노 마치(昭和の町)’, 쇼와의 마을이다.

오이타시에서 차로 1시간이 조금 넘는 거리에 위치한 분고타카다시는 에도 시대(1603~1868년)부터 1960년대까지 구니사키(国東) 반도에서 가장 번영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며 아무도 찾지 않게 되며 ‘개나 고양이만 지나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쇠퇴해갔다. 이에 지난 2001년, 지역 부흥을 위해 가장 활기가 넘쳤던 시기인 1950년(쇼와 30년)의 모습을 되살려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쇼와노 마치’이다. 쇼와노 마치는 크게 전시관인 ‘쇼와 로망 창고(昭和ロマン蔵)’와 쇼와 시대를 재현한 상점가 거리를 일컫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 쇼와 로망 창고 昭和ロマン蔵



1930년에 지어진 부호 노무라 가문의 곡창을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현재는 쇼와노 마치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크게 세 곳의 전시관으로 나뉜다.

- (1) 팀랩 갤러리(チームラボギャラリー)
- (2) 다가시아노 유메 박물관(駄菓子屋の夢博物館)
- (3) 쇼와 유메마치 산초메관(昭和の夢町三丁目館)

위 세 곳은 모두 유료 입장이며, 쇼와 유메마치 산초메관 내에 있는 ‘쇼와 유메마치 소학교(昭和の夢町小学校)’와 다가시아노 유메 박물관의 다가시 가게는 무료로 볼 수 있다. (통합 관람권 : 어른 850엔)

### (1) 팀랩 갤러리(チームラボギャラリー)

: 전시 작품명 ‘그리는 구사지 춤(草地あどり)’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디지털아트 그룹 ‘팀랩(teamlab, チームラボ)’의 전시이다. 이곳의 전시는 다른 전시와 다르게 전용 종이에 그림을 그려 스캔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 화면에 나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월(제6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직접 그린 그림(좌)과 화면 속에서 춤을 추는 그림(우)

타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화면 속의 캐릭터는 터치하면 반응을 보이고, 음악에 맞추어 분고 타카다시의 전통 본오도리(盆踊り, 백중맞이 춤 ‘구사지 춤(草地あどり)’)를 추기도 한다.

### (3) 쇼와 유메마치 산초메관(昭和の夢町三丁目館)



유메마치 산초메관 내의 유료 전시관에 들어가면 쇼와 시대로 타임 슬립을 할 수 있다. 평범한 가정집과 공터가 있는데 공터에 놓인 훌라후프를 가지고 놀다 보면 어느새 붉게 ‘저녁놀’이 진다.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나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자. 당연하게도(!) 실제 저녁이 아니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며, 조명이 어두워지면 소품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다. 전시관 밖에는 옛날 학교 교실이 마련되어 있어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도 즐길 수 있으니 온 몸으로 쇼와 시대를 체험해보자.

### (2) 다가시아노 유메 박물관(駄菓子屋の夢博物館)



다가시(駄菓子, 소위 불량식품) 사업자였던 ‘고미야 히로노부(小宮裕宣)’씨의 피규어, 완구류 등 애장품 약 6만 점을 전시하고 있다. 오래된 영화나 광고 포스터, 그 시절 사용했던 가전도 있어 그리운 어린 시절, 쇼와 시대를 떠올리며 추억의 물건을 찾는 재미가 있는 박물관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쇼와 시대 태생이 아닌 이상 크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포토존도 있으니 가볍게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박물관 입장은 유료이며 출입구에 위치한 다가시(불량식품) 가게는 무료로 볼 수 있다.

### 쇼와의 가게(상점가) 昭和の店



8개의 상점가에서 쇼와 시대를 재현한 가게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가게마다 특색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둘러보고 체험할 거리가 많은 쇼와노 마치에 가 보면 어떨까.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 (pu-no314@pref.io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월(제6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12화

여러분은 좋아하는 영화가 있나요?



저는 디즈니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씩씩한 공주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서,



둘째는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른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입니다.



여전에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영화 개봉일에 퇴근하고 보러가는게  
진짜 큰 낙이었기에



일본에 와서도 보러다니긴 하지만  
놀랍게도 현내에서 상영해주는 곳이  
나카쓰밖에 없어요 ㄱㄱ



디즈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현 내 어디에서나  
디즈니영화를 볼수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그래도 한국에는 없는  
팜플렛을 사는게  
큰 행복이랍니다~